

‘공수조화’ vs ‘최강공격’...女배구, 오늘 마지막 자존심 대결

우승 흐름 바꾼 한국도로공사 ‘확률 0%’에 도전

흥국생명, 김연경·엘레나 앞세워 안방서 도전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공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공격력이 강한 흥국생명이 챔피언결정전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4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 4차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3-1(22-25 25-21 25-22 25-23)로 역전승을 거뒀다.

챔피언결정전 1, 2차전을 모두 패했던 도로공사는 안방서 열린 3, 4차전을 모두 잡는 파란을 연출했다. 도로공사는 2017-2018시즌 통합 우승 이후 5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오른다.

역대 V-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1, 2차전을 패하고 우승한 팀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도로공사의 도전은 의미가 크다.

도로공사는 3, 4차전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3, 4차전 모두 1세트를 내준 후 내리 세 세트를 따내 승리한 것이다.

승리의 중심에는 수비가 있었다. 도로공사는 세트 후반마다 투혼의 수비로 공을 공격수에게 전달했고, 캣백과 박정아 등 공격수들은 귀중한 찬스를 살려 득점으로 연결했다.

좋은 수비, 날카로운 공격이 나올 때마다 도로공사의 조직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결국 도로공사는 최강팀 흥국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밀었다.

흥국생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 역시 도로공사의 미친 듯한 수비력에 감탄을 했다.

분위기는 도로공사 쪽으로 넘어와있다.

김종민 감독은 도로공사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4차전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좋았다. 5차전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정아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웃으면서, 재밌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3, 4차전에서 거짓말 같은 역전패를 당했다. 김연경과 엘레나를 앞세워 리드를 하다가도, 거짓말처럼 조직력이 흔들려 무너졌다.

특히 흥국생명은 도로공사와 같은 끈기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수비의 위치 선정도 좋지 못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아본단자 감독은 4차전을 마친 후 선수들의 투지와 집중력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아본단자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승이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찬스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흥국생명의 체력이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흥국생명은 일찌감치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챔피언결정전을 치를수록, 체력이 크게 떨어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흥국생명은 5차전에서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라는 ‘게임 체인저’



를 보유하고 있다. 김연경이 화력이 터지면, 일순간에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김연경과 함께 엘레나 쌍포가 터지면 오히려 쉽게 우승을 가져갈 수도 있다.

흥국생명이 안방에서 강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아본단자 감독은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기대하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통산 다섯 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이자, 네 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챔피언결정전 5차전은 6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별똥별보다 계속 떠 있는 별이 됐으면”



피겨 이해인, ISU 피겨 세계선수권 은메달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0년만에 메달 획득 ‘나에 대한 의심 떨치고 다시 믿어주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이해인은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나에 대한 믿음을 떨치고, 나를 다시 진심으로 믿어주시기로 했다. 진심으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3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해인은 이날 서울 노원구 태릉빙상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선수권을 마치게 살아온 중에 가장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다녀온 이후 인터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한 것이 처음이라 신기하고 색다르다. 그래도 내가 뭐가 잘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딴 것은 이해인이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역대 두 번째다.

2022-2023시즌 초반도 녹록치 않았다. 시즌 초반 독감에 걸리면서 대회에 기권할 뻔했고, 2022-2023시즌 두 차례 ISU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도 모두 4위에 그쳐 어렵게 메달을 놓쳤다. 이해인은 “4라는 숫자가 그렇게 싫더라”고 농담했다.

시즌 초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본인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해인은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노력을 하면 된다는 마음이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는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것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해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격려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았다.

이해인은 “제가 멘탈이 단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긍정적이기는 하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기 보단 ‘이런 일을 겪을 운명이었다고 다시 행복해지려나보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즌 초반 힘들 때 새로 사귄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경)재서, (이)시형, (차)준환오빠가 응원해줬다. (김)예립언니도 많이 조언해줬다. (김)재연이가 열심히 해서 자극도 됐다”며 “그래서 다시 힘을 냈다. 4대륙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해인은 2023-2024 시즌을 더 높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 트리플 악셀을 연습했다. 4대륙선수권에 나가기 전 몇 달 만에 뛰었는데 나쁘지 않았다”며 “5번을 뛰면 3번은 착지를 한다. 팀 트로피를 마치면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시즌에는 1개 이상 뛰고 싶다”고 밝혔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올림픽에 대한 “올림픽도 큰 무대지만, 그랑프리 시리즈와 4대륙선수권, 세계선수권 등 굵직한 대회가 많다. 일단 눈앞에 놓인 대회를 신경쓰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올림픽에 대해 생각하겠다”면서 “아직은 너무 멀리 있다”고 답했다.

피겨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이해인의 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별똥별 같이 반짝 했던 선수들도 있잖아요. 저는 별똥별보다 계속 떠 있는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싶어요. 나중에 은퇴할 때 사람들이 저를 노력하고, 행복하게 타는 데 잘 했던 선수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럽 가는 클린스만 감독

지친 김민재에 힘 될까

김민재·손흥민 등 유럽파와 면담 예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유럽파 점검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최근 피로감을 호소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에 힘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 경기를 관전한 뒤 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의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낸 뒤 유럽으로 건너가 손흥민(토트넘), 김민재, 이강인(마요르카) 등 유럽파 선수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큰 이목을 끄는 건 김민재와 면담이 예정된 이탈리아 나폴리 방문이다.

K리그 전복 현대에서 프로로 데뷔해 베이징과 중국, 페네르바체(터키)를 거쳐 지난 해 여름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함께 대체 불가 자원으로 꼽힌다.

2018 러시아월드컵 때 불의의 부상으로 낙마했던 김민재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 처음 출전해 한국의 16강을 함께 했다.

이런 김민재가 3월 A매치 기간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와 연전을 마친 뒤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충격을 줬다.

이후 김민재가 직접 나서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김민재가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

실제로 올 시즌 나폴리에서 철벽 수비를 자랑하던 김민재는 A매치 2연전에서 총 4골을 실점한 데 이어 소속팀 복귀 후 치른 첫 경기인 AC밀란전에서 0-4로 크게 졌다.

김민재 혼자만의 실점은 아니지만, 불과 몇 주 사이 수비수로서 무려 8골을 내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등 대표팀 선배들과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면서 김민재를 향한 시선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 역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언제 또 불화가 재점화할지 모른다.

김민재가 대표팀 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2022 카타르월드컵을 치르고 지난 2월쯤 축구협회에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민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민재를 둘러싼 최근의 사건은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보고됐다.

3월 대표팀 소집 때도 면담했지만, 이후 사태가 커진 만큼 유럽 출장에서 다시 한번 김민재와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의 유럽 출장 일정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민재를 비롯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울버햄튼),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헛된 땀방울은 없다...울림 주는 캐롯 선수들

가임비 완납하며 PO 출전...간판 슈터 전성현 없지만 1승1패 원점

프로농구 고양 캐롯이 6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여세를 몰아 하위팀의 반란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캐롯은 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 2022-2023 SKT 에이닷컴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86-79로 이겼다.

쉽지 않은 울산 원정에서 1승1패를 거두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특히 간판 슈터 전성현이 이탈한 가운데 거둔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

리그 최고 3점슛을 자랑하는 전성현은 달팽이관 이상에 따른 돌발성 난청으로 정규리그 막판부터 결장하고 있다. 단기간 승부를 앞두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허가 아래 지난 2일까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3차전 출전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출전과 승리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전성현이 빠진 자리는 2년차 가드 이정현이 메웠다.

이정현은 2차전에서 3점슛 4개를 포함해 34점을 쏘으며 코칭스태프를 웃게 했다.

캐롯 선수단의 선전은 울림을 준다.

가임비 미납으로 정규리그 5위에 오르기도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생계를 걱정하게 했다.

캐롯 구단은 지난해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창단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법인 데이원스포츠가 운영하고, 캐롯손해보험을 네이밍 스폰서로 유치해 첫 시즌을 치렀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직원 임금 체불, 하도급금 지연 등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농구단도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했고, 결국 후원하던 캐롯마저 손절하고 떠났다.

캐롯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임비 미납분 10억원을 KBL에 납부하지 못하면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였다.



우여곡절 끝에 납부해 위기를 넘겼지만 선수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선수단을 관리하는 코칭스태프와 구단 프런트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캐롯은 밀린 임금과 협력 업체 대금, 오리온 구단 인수 대금 등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주인을

찾는 과정에 있다. 구단 측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롯은 오는 6일 현대모비스를 안방 고양체육관으로 불러들여 3차전을 치른다.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캐롯 선수들의 마음이 푹푹 묻히고 있다.

뉴스

뉴스